# 남원시 관광인프라 구축 분주

## 춘향 전시관 건립 · 영주각 보수 · 춘향 · 이도령 포토존 설치 등

광한루를 찾은 관광객들

남원시 시설사업소가 본격적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시설환경 개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주자는 오는 3월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춘향전시관이다. 총 사업비 60억원을 들여 건립하고 있는 춘향 전시관은 19세기 춘향이가 200여 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을 지켜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아난 춘향이를 직접 만날 수 있다.

1582년 이후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주각도 총 2억2000만원을 들여 3월부터 보수할 예정이다. 영주각은 그동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다.

또한 4월부터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은 춘향과 이도령의 환영인사를 받는다.

춘향·도령 조형물에 하트변형구조물이 가미된 상시 포토존이 3월말 완월정 앞 잔디밭에 설치되기 때문이다. 광한루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추억을 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춘향테마파크 역시 새 단장을 준비중에 있다. 그동안 조망에 방해가 되었던 대나무와 잡목들을 일부 정리하고 배롱나무와 단풍나무 등을 식재했다. 계절별로 꽃피는 공원을 조성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힐링 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춘향문화예술회관은 총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무대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문화예술회관의 이용객들은 보다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된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는 기존의 야간 특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야간 프로그램은 전국 유일의 자부심과 지난해 4월 시행 이후 전석 매진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지역 숙박업소들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스타 파티(Star Party)라고 이름 붙여진 이 프로그램은 가족, 대학생, 연인, 성인 등 참가자에 맞춰 6가지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2월과 3월, 시범운영을 거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4월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시설사업소는 앞으로도 질 높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남원을 찾는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고품격 명품 관광 도시 남원을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순창군, 농 · 특산물 관광 활용 '전국 최고'

## 2015년 트래블아이 어워즈 '우수 특산물' 부문 수상

순창군이 고추장 등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전국 최고관광지임을 입증했다.

군은 문화미케팅연구소가 주최하고 트래블아이·트래블투데이가 주관한 2015년 트래블아이 어워즈 '우수 특산물' 부문에 순창군이 선정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트래블 아이와 트래블 투데이는 전국 지자체 229곳의 여행 정보를 서비스하는 관광플랫폼과 관광정보 신문이다.

트래블아이 어워즈는 '지역호감도'라는 성과 지표를 수치화한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1차 정략적 평가 후 관광분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2차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진행해 상의 객관성을 더했다.

관광산업의 지역별 편차를 특허 기술화한 지역 호감도를 기반으로 지역호감도, 우수관광시설, 우수축제, 우수음식, 우수특산물, 우수시장 등 6개 부문에서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순창군은 특히 고추장 등 지역의 전통 자원을 활용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특산물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은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을 조성해 관광자원화했다. 또 전통장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장류체험관을 직접 운영해 해마다 1만5000명 정도의 체험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특히 장류연구소, 발효미생물진흥원 등에서는 다양한 기능성 장류제품을 개발해 산업화하는 것은 물론 관광산업과도 연계하는 등 농특산물을 활용한 산업관광 추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근에는 지역 농민들과 소비자들을 연계하는 순창군 농특산물직판장을 관광 코스와 연계해 지역의 청정농산물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농가소득 창출에도 노력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순창군은 고추장 등 등 장류부문에서 국내 최고의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고 있는 지역이다"며 "앞으로도 장류는 물론 지역의 대표적 농특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수상식은 지역 관광자원 개발과 홍보 차원에서 찾아가는 시상식으로 지난 27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문화계 원로인 신문수 화백과 이정문 화백, 창조관광 컨설턴트, 파워블로거 등 다양한 관광분야 인사 30여명이 참여했다.

/순창=구인규 기자

## 정월대보름 행사 '풍성'

# 고창 오거리당산제 · 민속큰잔치

### 줄시위 · 연등놀이 · 줄다리기 등 진행

정월대보름을 맞아 고창군에서 '제35회 고창오거리당산제'와 '제25회 민속큰잔치'가 개최됐다.

행사는 22일 고창읍 중앙당산 일대와 고창읍성 주변 야외공연장에서 박우정 고창군수와 이상호 군의장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 및 주민 등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정월대보름 고창오거리당산제·민속큰잔치 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고창오거리당산제보존회, 고창향토민속보존회, 고창읍이장단협의회가 주관하며, 고창군·고창군의회·고창문화원, 한빛원자력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기념식, 거리행진, 당산제, 당산놀이, 대보름 민속놀이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이날 당산놀이는 문화의전당 앞에서 출발해 고창읍사무소와 군청을 지나 신사거리를 거쳐 중앙당산까지 오거리 당산제 줄시위(시가행진)를 한 뒤 중앙당산에서 당산제를 지내고, 연등놀이, 줄예맞이, 줄다리기, 소망 달집태우기 순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중리(중앙) 당산 주변에서는 고창읍민들이 각 마을별로 참여한 가운데 윷놀이, 투호놀이, 제기차기, 줄다리기 등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이 열렸다.

한편 이날 고창군 14개 읍면 63개 마을에서도 마을광장이나 회관에서 마을회, 농악단을 주축으로 주민들이 모여 당산제, 달집태우기, 민속놀이, 농악놀이, 보름굿놀이 등 자체적으로 정월 대보름을 즐기는 행사를 마련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임실군 곳곳서 민속놀이

### 임실읍 · 관촌면 등 26개소에서 진행

2016년 희망찬 붉은 원숭이 해 정월대보름을 맞아 22일 임실읍과 관촌면을 비롯한 9개 읍·면 총 26개소에서 마을회 및 사회단체가 주관한 신명나고 흥겨운 정월대보름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중심회(회장 권기철) 주최로 임실고등학교 앞에서 열린 정월대보름행사는 심민 군수를 비롯한 각계 기관·사회단체장과 35사단 장병, 군민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터울림, 불꽃놀이, 부럼깨기, 쥐불놀이, 음식나누기, 달집점화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돼 즐거운 축제의 한 마당이 됐다.

또한, 관촌면지역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사선대고수부지에서 열린 '제2회 정월 대보름행사'는 관촌 풍물단의 신명나는 어울 한마당 공연과 난타, 민요, 초청가수 공연을 비롯해 무운을 비는 제례식에 이어 소원문 작성, 달집태우기, 풍등 날리기 등의 행사가 진행돼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도 청웅, 신평, 성수, 오수, 지사, 삼계면 등에서 마을 특색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이 정월대보름 밤을 뜨겁게 달궈 군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문화공간의 장이 마련됐다.

/임실=진홍영기자

로컬플러스

### 남원 1000원 안심 통학택시 운영

남원시에서는 1000원으로 택시를 타고 하교하는 안심통학택시를 운영한다.

농촌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중 버스노선이 불편하여 자전거 등 개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5개교 27명이 대상이다.

시는 올해 예산 3,500여만원을 확보하고 사전준비 작업을 거쳐 3월 2일부터 본격 운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년도에도 3,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4개교 33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다. /남원=유영철 기자

### 고창복분자 클러스터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식당 운영자 모집

고창군 부안군 용산리 복분자 클러스터 단지 내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가 완공돼 센터 내 풍천장어 식당 운영자를 모집한다.

군은 다음달 4일까지 사용 신청서를 접수 받아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자를 선정한다.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식당 운영을 위한 전문적인 경험과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560-2624,2645)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기자

### 임실군, 축산농가 편의장비 지원

임실군이 '축산농가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축산 농가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축종별 특성에 맞는 사육기반조성을 위해 시설 및 환기개선 등의 장비를 지원하는 '소 보정잠금장치지원' 등 9개 사업으로 군은 금년에 전년대비 1억4,200만원을 증액한 군비 3억3,5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인공 수정 및 개체관리 등 사육환경 개선으로 노동력 절감과 각종 전염병의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과수 재해보험 가입접수

남원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오는 2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가입신청을 받는 주요 과수 5개 품목은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 감이며 3월 25일까지 한달 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입기준은 1,000㎡ 이상 과수원으로 자기부담비율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과수원 소재지 지역농협에서 상담 및 가입을 할 수 있다.

주계약으로 태풍(강풍), 우박 피해 등의 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특약 가입 시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나무손해보장 특약의 경우 태풍(강풍)과 집중호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순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인기'

순창군은 지난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및 분소 운영결과 총 47기종에 6,546건의 임대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군이 목표로 한 4,000건 보다 164% 정도 높은 실적이다.

이처럼 군의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타 시군에서 시행하지 않은 무상임대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또 지난 3월부터 서부권 분소를 개설·운영해 그동안 본소와 멀리 떨어져 이용이 어려웠던 쌍치·복흥·구림면 지역 임대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군은 올해에는 논두렁조성기 및 배낭식 예취기 등 30여대를 추가로 구입해 농가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농기계 임대 관련 문의는 시험포관리계 650-5122에 문의하면 된다. /순창=구인규 기자